

성심교정

1) 동문회 현황

성심 총동문회는 1968년 3월 여성고등교육의 산증인 성심여자대학에서 창립되어, 1995년 3월 가톨릭 신학대학과 한국 굴지의 의과대학이 힘을 하나로 모아 가톨릭대학교로 통합 출범한 이래 현재까지 그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본 동문회는 모교의 발전과 동문 상호간의 유대를 도모하기 위한 조직으로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내에 사무실을 두고 춘천, 분당, 일산, 서초, 강남등에 지회를 두고 있다.

2) 동문회 연혁

● 1968~1971(1~4대)

동문회가 처음 창립한 이후 체제 정비와 활동내용을 마련한 시기로 회칙제정과 사업계획의 마련 등을 통해 동문회 발전의 단초를 다지는 시기였다.

● 1972~1977(5~7대)

동문회의 질적, 양적 확장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5회 졸업동문부터 동창회 입회식을 실시하였으며 (그 전통은 1996년 2월까지 이어지게 된다) 각과 동문회를 조직하여 상호 유기적 결합을 꾀하게 되었다.

또한, 모교 개교 10주년을 기념하여 장학기금 1천만원 모금을 전개하였으며 지속적인 모금을 위해 교내에 '고운집' 매점을 운영하였다.

이 시기는 모교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이 전개된 시기로, 1974년 부천으로의 이전 계획 이후 부천 교사 성모상 건립을 위한 모금과 국내외 대학원 지방생에 대해 장학금 지급, 모교에 장미나무 헌수운동을 전개하였다.

● 1978~1981(8~9대)

이 시기에는 모교 부천교사로의 이전 계획에 맞춰 활동의 변화를 갖게 되었다. 동문회는 춘천, 부산지회 운영에 대한 방침을 변경, 본회와 통합 운영되어 왔던 것을 분리하였다.

모교 지원 사업으로는 부천교사 내에 도서관 증축기금 운동을 전개, 도서관에 카펫을 기증하고 그 동안 운영해 오던 춘천교사의 매점은 기숙사로 인계하였다.

또한, 모교가 벌이는 지역사회 후원 활동을 지원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조직 성장을 꾀하는 시기였다.

● 1982~1987(10~12대)

부천교사로 이전한 이후 모교의 교세 확장과 함께 동문회도 급격한 팽창을 이루는 시기였다. 해외(L.A.뉴욕)의 지회 운영이 시작되었고, 급격히 늘어난 동문의 수로 인하여 동문관리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어 동문자녀 음악회 개최, 동문 주소록 정비, 주소록 발간 등의 내부사업을 전개하였다.

모교지원으로는 예수성심성당에 오르간 기증, 소강당, 대강당 의자 기증 등 각종 시설의 설치, 지원을 하였으며, 특히 '김재순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재단법인 '성심장학회'에 기부하였다.

● 1988~1989(13대)

1988년도에 있었던 가톨릭대학교의 통합 안 철회 요구로 인해 동문회의 활동이 내용적으로 성숙되었던 시기로 모교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성심발전공동협의회'를 구성 장기발전계획안을 마련하여 모교에 제안하는 등의 적극적인 활동이 전개된 시기이다.

또한 재학생들의 요구를 수렴해 교내 자동판매기를 인수, 운영하게 되었다.

1986년부터 참가하기 시작한 세계성심동창회(AMASC) 임원진의 서울방문을 계기로 성심의 이념을 세계에 널리 알리며 동문회 활동의 새 장을 열게 되었다.

● 1990~1992(14~15대)

동문회원의 확대에 따른 동문회 조직 개편이 이루어진 시기로 기대표, 과대표를 선출, 이사회 구성 등을 통해 동문들의 관심을 촉구하였다. 특히 동문의 수가 1만 명이 넘어가는 1991년을 기점으로 하여 제2의 도약을 마련하기 위해 그 동안 재학생과 함께한 '성심 모꼬지'를 동문회 자체의 행사인 동문회 총회 및 동문잔치로 바꾸게 되었다.

2대 학장이셨던 주매분 수녀의 중국의 수혜에 따른 도움 요청으로 동문들이 모금, 후원하였고 학교부설 사회복지관에 피아노를 기증하였다.

● 1993~1994(15~16대)

가톨릭대학교의 통합에 대한 학교의 결정을 전달 받은 이후 통합 관련 논의가 주된 활동이 되어 동문들의 의견이 학교에 전달,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 시기였다. 성심의 전통과 역사가 계승되길 요구하였으며, 동문회는 변함없는 모교에 대한 애정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통합된 학교의 발전상을 동문에게 알리는 데 주력하였다. 그러한 결과로 미국전역을 포함하여 중앙도서관 건립기금으로 모인 기금을 30주년 행사 때 학교에 전달하여 모교 지원사업의 끈을 이어갔다.

● 1995~2013(17~26대)

가톨릭대학교의 통합 이후 눈부신 발전을 맞고 있는 모교의 모습을 통해 동문회도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되었다. 우선 동문회의 명칭을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동문회'로 개정하고 동문회보의 명칭도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동문회보'로 개칭하였다. 또한 2004년 성심교정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중앙도서관 앞 만남의 광장에 시계탑을 세우고 '성심국제문화 연수원 건립' 추진을 시작하면서 성심교정동문회에서 모교 발전을 위해 기증한 발전기금은 당시까지 약 24억원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했으며 교정간의 유대도모와 모교발전에도 더욱 집중하였다. 또한, 후배들을 격려하기 위해 중간·기말고사 기간 재학생들에게 동문빵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 2014~2018(27-29대)

1964년 성심여자대학으로 개교한지 50주년을 맞이하는 모교를 위해 동문회는 모교에 5억을 기부하기로 결정하고, 5억중 2억 5천만원은 동문회 자산에서 기부하고 나머지는 동문들을 대상으로 모금운동을 진행하였으며, 현재 목표금액 5억을 모두 달성하였다. 또한, 재학생들에 대한 지원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모교와 동문회를 홍보하기 위해 성의교정 동문회와 함께 동문회 기념품으로 다크초콜렛을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다.

● 2019~현재(30-33대)

모교와 재학생 후배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면학 공간을 제공하고 외국인 학생을 포함한 우수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해 동문회장 이하 모든 기수의 임원진들이 대학 발전 기금을 납부해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동문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사업자를 설립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기념품 판매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다. 성의교정 의과대학 총동문회와 함께 기념품(초콜릿)을 판매하고 있으며, 대학으로부터 '기념 와인'의 판매 권한을 넘겨받아 보다 다양하고 편리하게 기념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다양한 행사들을 지속해감과 더불어, 시대의 흐름과 그에 따라 변화하는 요구를 파악하고 동문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3) 동문회 주요 활동

동문회 활동은 동문들이 내는 연회비, 평생회비, 이사회비, 평생이사회비, 후원이사회비 외에 재학생 입회비로 운영되고 있다. 동문회의 활동을 크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가톨릭대학교 성심동문회 송년의 밤 행사(매년 11-12월 중 진행)
- ② 동문 활동(단위지회, 동문모임, 동문찾기 등) 보조
- ③ 동문회 홈페이지 운영
- ④ 정기 회의 개최(매년 2월)
- ⑤ 동문 근조기 운영
- ⑥ 동문회 수익사업 - 기념품(현재는 초콜릿 단일 품목) 판매
- ⑦ 졸업생 동문회장상(상장/금기념품) 수여
- ⑧ 동문 장학재단 운영
- ⑨ 학부생/대학원생 장학금 지급
- ⑩ 재학생 활동(대학 축제, 시험기간 간식행사, 총학생회 활동 등) 보조
- ⑪ 대학 달력 배부(대상자에 한해)

4) 조직과 구성

본 동문회 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회장 1인과 부회장 약간명, 각 부 임원 그리고 감사와 이사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의원들과 이사들을 중심으로 하여 동문회의 결합을 공고히 하고 있다. 매년 1회 정기 이사회와 대의원총회를 통해 동문회의 운영 현황과 실적을 공유하고, 동문회장 선출 및 주요 안건을 논의한다.

성의교정

1. 의과대학

1) 연혁

가톨릭의대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한 1960년 2월 25일 창립 총회를 열어, 모교의 발전과 동문 상호 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결성된 동창회는 강제진 동문을 초대 회장으로 선출하여 1967년까지 2, 3대에 연임하였고, 1967년 제4대 회장에 1회 졸업생인 길병도 동문을 선출하여 1973년까지 5, 6대를 연임하면서 재학생을 위한 장학사업 및 보조사업을 넓혔다.

1973년 제7대 회장에 1회 차형근 동문을 선출하여 8대에 연임하였다. 1977년 1회 이한길 동문이 제9, 10대 회장을 연임하면서 기금모금 운동 및 귀국동문 기념학술 세미나 및 동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운동시합, 낚시대회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1981년 제11대 회장에 2회 김광태 동문이 선출되었고 재임기간 숙원사업이었던 강남성모병원의 개원을 맞이하게 되었다. 학사일정을 기재한 달력을 제작하여 전 동문에게 배포하는 사업을 하였으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조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동문들에게 폭넓은 혜택을 도모하고자 힘썼다. 또한 재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1983년 2월에는 제12대 회장에 3회 송석규 동문을 선출하여 개교 30주년을 맞아 교내에 히포크라테스 동상을 제작하였고, 1985년 제13대 회장에 4회 권혁채 동문을 선출하여 본교에 재직 중인 조교수급 이상의 동문들을 대상으로 동문연구비 지급 사업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1987년 2월에는 제14대 회장에 5회 차상덕 동문을 선출하여 동창의 날 행사를 지속사업으로 확고히 정립시켰으며, 졸업 25주년 재회의 날을 만들어 매해마다 25주년을 축하하는 축하의 장을 만들었다.

1989년 2월에는 제15대 회장에 6회 조덕연 동문을 선출하였으며, 재미 동창회와의 협력하에 유학중인 동문 2명을 선정하여 재미 동창회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사업 제도 마련과, 동창회의 심볼인 기(flag) 및 지회기 제작과 지속적인 사업 확대 등에 총력을 기울여 성과를 거두었다.

1991년 2월에는 제16대 회장에 7회 이보연 동문을 선출하였으며, 지부를 확대하여 서울에 10개, 지방에 16개, 특별지부(여의사지부) 및 학내, 재미 지부를 포함해 총 29개 지부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1993년 2월에는 제17대 회장에 8회 이창빈 동문을 선출하여 개원의와 원내 동문들 간의 가교 역할과 함께, 서울시 구 의사회 대의원들을 우리 대학 출신들로 유치하는 일에 힘써서 많은 동문들이 서울시 대의원으로 선출되었다.

1995년에는 제18대 회장에 9회 장종호 동문을 선출하여 성심교정과 성의교정 동창회를 통합하여, 초대 총동창회장을 장종호 동문이 맡고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하는 등 향후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고, 1997년에는 제19대 회장에 10회 허춘용동문을 선출하여 대외적인 활동으로 시·도·구 의사회장에 동문들이 다수 당선시켰다. 1999년에는 제20대 회장에 11회 이창규 동문을 선출하였다.

40년 역사 속에 조기(弔旗)제작에 뜻을 같이하여 10개의 근조기를 제작하였다. 2000년에는 CMC 출신 으로서는 최초로 서울시의사회장에 한광수(6회) 동문이 선출되었다.

2001년에는 제21대, 제22대 회장에 2회 김광태 동문을 선출하였다.

“자랑스러운 가톨릭의대인의 밤”의 날을 제정하여, 본교 출신의 총 본산인 동창회가 그 권위와 명예와 부상금을 걸고, 우리의 표상이자 수범이 되는 동문을 선출하여(학술분야와 봉사분야) 본 대학 역사를 길이 빛낼 수 있는 분으로 받들고 본받으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이 행사를 매년 개최하기로 결정하여 2001년 11월에 첫 시작을 하여 제1회 자랑스러운 가톨릭 의대인으로 봉사상에는 선우 경식(10회) 동문이, 학술상에는 천명훈(18회) 동문과 주천기(22회) 동문이 각각 선정되었다.

2004년 5월에는 가톨릭의과대학 개교 5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4천여 동문들의 뜻을 담은 기념조형물을 1억여 원 투자하여 교정에 건립하였다.

2005년 1월, 정기총회에서 제23대 회장에 한광수(6회)동문을 선출하여 후배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에 일환으로 유증운동을 시작하였고, 2006년 국군 의무사령관에 김록권(21회, 중장) 동문이 취임하였다.

2006년 1월에는 타교출신 명예교수님들께 명예회원으로 위촉하는 위촉증서를 수여하였고, 본 대학 동문으로서 정년을 맞으시는 동문들에게는 행운의 열쇠(5돈)를 증정하기로 하였다.

2007년 제24대-제25대 회장에 백성길(8회)동문을 선출하였고, 2010년 1월 말,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재단법인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동창회 장학재단>을 인가받게 되어 장학재단을 위한 기금모금에 주력하게 되었다. 2010년에는 동창회 50년사 편찬을 위해 한광수 전임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맹광호(9회) 위원을 중심으로 50년사 발간 사업을 추진하였다.

2011년 제26대 회장에 정규형(18회)동문을 선출하였다.

동문골프대회를 해비치 골프장에서 개최해 총152명의 동문이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마쳤고, CMC중앙의료원과 MOU 협약식(원외동문 무료주차와 동문 및 배우자 진료비 10% 감면, 도서관 이용 등)을 체결하여 원하는 동창들에게 동창회 카드를 발급함으로써 이익금 일부는 장학재단에 기부되는 구조를 만들었다.

2012년 문정립(27회)동문이 선진통일당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2013년 김갑식(19회) 동문이 제27대 회장에 선출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여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모교 기념품인 초콜릿 2,500개를 제작하여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2014년 5월에는 개교 60주년 기념 음악회를 학교와 공동으로 주관하여 ‘참의료인 양성 60년, 세계로 도약 100년’이라는 슬로건 하에 많은 동창들의 참여 속에서 성황리에 감동적으로 이루어내었다.

2014년 9월, 하나은행-하나대투증권과 하나골드클럽 기부서비스 및 하나대투 기부서비스를 통한 기부금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는데, 이는 금융을 통한 회사 이익의 일부를 동창회 장학재단에 해당 고객의 이름으로 기부해 주는 금융서비스이다. 업무 협약에 따라, 장학재단에 후원을 원하는 동문은 서비스 가입 후 본인 명의로 가톨릭의과대학 동창회 장학재단에 기부할 수 있게 되어 장학기금 조성 활성화에 이바지하게 되었다.

2015년 제28대 회장 김갑식(19회)동문이 연임을 하게 되었다. 2015년 9월에는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동창회를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총동문회’로 명칭 변경을 통해 가톨릭의대·의전원 졸업생 외에 가톨릭의대·의전원 교원, 가톨릭대 일반대학원 석·박사학위 취득자, 가톨릭의대 부속병원 수련 전공의들도 모

두 동문에 포함시키는 넓은 의미의 동문회로 거듭나게 되었다. 동문회의 확충에 한 걸음 나아가게 되었고, 11월에는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60주년 건립 기념관 건립 기금 후원약정(2015년, 2016년 각 5,000만 원 총 1억 원 후원)을 하였다.

2016년 1월에는 30회 이후의 젊은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동문 경쟁력 증대와 소통을 위한 실제 입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식들을 공유할 수 있는 정보 공유 웹 사이트 정보바다(www.camead.or.kr)를 통해 교육 콘텐츠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2017년 29대 최요규 회장(23회)이 취임하였다.

동문회의 역사가 길어지고, 의료 환경이 변하면서 젊은 동문들의 동문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저조하였다. 이에 동문회의 경험과 경륜을 통해 젊은 동문에게 도움을 주고 동문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하여 재미와 보람을 찾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5월의 총동문의 날을 체육대회로 개최하여 젊은 동문과 자녀들이 함께 오는 기회로 만들었다. 서울 성모 병원 신축으로 없어진 잔디 운동장을 대신하여 인천에 위치한 셀트리온의 잔디 운동장을 빌려 개최하였는데 젊은 동문과 어린 자녀들의 참석이 높았다. 준비 과정에서 32회 동기회(동기회장 허진), 42회 동기회(동기회장 이정원)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참가자의 만족도가 높았다. 9월에는 젊은 동문의 진로에 대한 도움을 주고자 39회 고희선 동문을 중심으로 진로 탐험 개원, 봉직을 준비하여 진행하여 좋은 반응을 받아서 계속 이어오고 있다.

2018년에 진행한 자랑스러운 가톨릭 의대인의 밤도 외부 사회자나 초청 연예인을 대신하여 동문들의 장기자랑, 사회자로 대치하였다. 동문 장기 자랑에서는 평소 동문회 참석이 드물었던, 졸업 5년 이내의 동문 Band 와 본교 출신이 아닌 성형외과 의료원 동문팀이 금상과 은상을 수상하였다. 준비에는 35회 동문회, 45회 동문회 55회 동문회가 참여하였다.

6월에 동문 골프 대회, 10월에 동문 등반 대회도 개최되었다. 2017년 12월에는 동문회 주관으로 최초로 해외 진료 봉사를 진행하였다. 19회 동문인 김우정 동문이 운영하는 캄보디아 헤브론 병원에서 현지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뿐 아니라 현지 의료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현지 병원의 의료 질 개선에도 기여하였다.

2018년 8회 동기회(동기회장 방승규)는 기존 졸업 25주년 행사와 별개로, 졸업 50주년을 맞이하여 모교 방문 행사를 갖고, 학교에 발전기금 1억원을 기부하였다. 이러한 졸업 50주년 기념행사는 8회 동기회에서 처음 진행하였다.

총동문회에서는 8회 동기의 졸업 60주년 행사를 기대하고 최대한 협조하기로 하였다.

2019년 30대 최요규 회장(23회)이 연임되었다.

2019년 10월10일 10회 동기회(동기회장 김영춘)는 졸업 50주년을 기념행사를 열어 옴니버스파크 건축기금 4천만원을 전달하고 1박2일 부부동반 여수와 전주로 부부동반 여행도 다녀왔다.

지난 11월 16일에는 젊은 동문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50회 동기회(동기회장 김종호)가 졸업 10주년을 기념해 첫 동기 모임을 갖고 37명의 동기들이 모였다. 총동문회에서 젊은 동문 활성화 지원금으로 100만원을 전달했다.

총동문회에서는 2018년 12월, 염수정(안드레아) 추기경과의 접견에서 세계 빈민지역 의료지원의 중요

성에 대해 공감하고 가톨릭의대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안 받아 준비하게 되었다.

2019년 9월 필리핀 마닐라 소재 요셉의원 장경근(안드레아)신부의 도움으로 4박5일 일정으로 3일간의 빈민지역 의료봉사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다.

11월에는 4박5일 일정으로 캄보디아 헤브론 병원으로 제3차 해외의료봉사를 다녀왔다.

총동문회에서는 연 3회 동문회보를 발간하여 동문 간 소통을 증진하고 있고, 추가로 동문 재정 확충 방안으로 정보바다를 콘텐츠 사업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안드레아 해외의료봉사와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는 기부금 전달로 대신했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신현영(47회, 2006년 졸업)동문이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었다.

2017년에는 동문회와 분리되어 운영되던 동문회 장학재단이 동문회와 통합되어 동문회장이 장학재단 이사장을 겸임하게 되었고, 동문 장학재단 장학금 수여 장학생을 4명으로 늘렸다.

2018년에는 5명의 장학생에게 전액 장학금 50,374,000원과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2019년도에는 30회 동기회(동기회장 유우정)와 34회 동기회(동기회장 방충일) 독자적인 장학생을 선발하고, 총동문회 장학재단 장학생 6명의 선발하여 8명 장학생에게 90,286,000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2020년에는 내과연구재단 장학생 2명을 추가 선발해 10명의 장학생을 선발, 107,574,000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하나금융투자와의 MOU 체결을 통해 총동문회 장학사업과 동문 연구비 지원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다.

2021년에는 총 11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116,364,000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올해 2022년 총동문회 장학재단에서는 10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총 112,200,000원의 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현재 총동문회 장학재단은 26회 동기회 장학금, 30회 동기회 장학금, 34회 동기회 장학금을 비롯해 이창규(11회, 70졸업) 동문 장학생, 이상원(재미 개인사업가_동문가족) 장학생 등 다양한 장학기금 기부를 통해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동기회별 장학생 선발과 개인기부자 장학생, 재학생 학부모 기부 등 다양한 방법의 기부가 가능하다. 이밖에도 학교 발전기금팀을 통한 가톨릭의대 졸업 동문들의 기부 활동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2021년 31대 권혁호(26회, 내과)동문이 총동문회장으로 선출되었다.

31대 회장단은 디지털홍보사업위원회와 의료원 동문 위원회와 청년위원회를 새롭게 개설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문들을 영입하였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총동문의 날 행사는 연기 후 취소되었고 상임이사회나 운영진 회의는 온라인 줌(ZOOM) 화상회의로 진행하였다.

대외활동이 제한되는 불가피한 상황 가운데 총동문회의 원내 교원 대상의 연구비 지원을 확대하고, 장

학생 선발에 집중하였다.

또한, 온라인 동문회 달력 사진 공모전을 통해 졸업 동문들의 생생한 생활상과 취미활동을 담은 사진 작품으로 2022년 동문회 달력을 제작 배포하였다.

2022년 4월에 총동문회와 장학재단은 법률적 검토와 타당성 점검, 네트워크 구성, 운영계획 수립 등 세밀한 준비를 통하여 동문 장학회관 건립 사업을 추진을 결정하였다. 이는 급변하는 우리나라 의료 환경과 동문회의 안정적인 경제적 여건을 대비하기 위한 임원진의 새로운 시도이다.

2022년 4월에는 총동문회와 장학재단 홈페이지 리뉴얼 오픈을 통해 국내외 동문들의 소식과 활발한 교류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되었던 해외 동문회보 발송이 4월 제작한 123호부터 재개되었다.

2) 조직과 구성

원외에 개원중인 동문들은 전국적으로 41개의 지부(서울 12개, 여의사 1개, 지방 25개, 재미 3개 지부)로 구성되어 총동문회와의 가교역할에 주력하고 있으며 각 졸업기수마다 회장 및 총무가 구성되어 동기별로 잦은 만남을 통해 총동문회와의 단합된 결집력에 힘쓰고 있다.

2024년 지금 현재 총동문회 사업을 운영해 나가고 있는 회장단 및 상임 이사진은 권혁호 총동문회장을 비롯하여 67명의 부회장과 9명의 위원장, 1명의 자문위원장, 33명의 상임이사와 2명의 감사, 23명의 자문위원과 1명의 법률자문 변호사, 3명의 대회장으로 총 138명(겸직 포함)의 임원진이 구성되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3) 총동문회 주요 사업

- ① 자랑스러운 가톨릭의대인의 밤(매년 1월 마지막 주 토요일)
- ② 총동문의 날 행사(매년 5월 셋째 주 일요일)
- ③ 동문골프대회(매년 6월 둘째 주 일요일)
- ④ 동문 진로 탐험 & Career Fair(매년 9월 셋째 주)
- ⑤ 해외 의료 봉사 (캄보디아 Hebron 병원, 필리핀 요셉의원)
- ⑥ 원내 교원 대상 동문연구비 지원(2024년 6명 선발 3,000만원 지원)
- ⑦ 재학생 총동문회 장학생 선발 및 전액 장학금 지급
- ⑧ 재학생 활동(신입생·재학생 공동수련회 지원, 국시 식사제공) 보조
- ⑨ 졸업생 총동문회장 상(순금메달 5돈) 수여
- ⑩ 신입 인턴, 레지던트 연수교육 기념품 증정
- ⑪ 달력 제작 배포
- ⑫ 동문회보 제작 배포(연 3회)
- ⑬ 총동문회 장학재단 운영
- ⑭ 신입회원 환영회
- ⑮ 동문 및 동문 가족 경조사업
- ⑯ 원외동문 5개병원 방문차량 무료주차등록신청
- ⑰ 원외 동문 및 배우자 5개병원 진료비 감면 신청

- ⑮ 정보바다(www.camead.or.kr)- 교육 콘텐츠 사이트 운영
- ⑯ 총동문회 수익사업 - 기념품(현재는 초콜릿 단일 품목) 판매

2. 간호대학

1) 연혁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동창회는 1957년에 20명의 첫 졸업생을 배출한 지 9년 후 1965년 11월 21일 한국회관에서 총 193명의 회원 중 85명이 모여 상호 친선도모 및 모교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발족하였다. 초대 회장으로 조봉숙(1회) 동문이 선출되었으며, 당시 간호과장이었던 방용자 수녀의 도움으로 동창회칙 마련 및 흰나리 장학사업을 펼쳐 재학생 19명에게 등록금 일부를 지원해 주는 등 동창회의 기틀을 닦았다. 초대 고문에는 전 성요셉 간호고등기술학교 교감이었던 김영진 선생이 추대되었다.

1967년 제2대 회장에 조봉숙 초대회장이 유임되었으며, 2대부터 고문으로 방용자 수녀가 추대되었다.

1970년 제3대 회장에 이선자(8회) 동문이 선출되어 동문회의 발전을 위해 힘썼다.

1972년 제4대 회장에 김경자(9회) 동문이 선출되었으며, 졸업 메달 제작 및 핀 수여, 해외동문에게 의맥과 달력을 송부하였으며 전체 야유회를 가지는 등 인화를 다졌고 많은 회원들의 호응 속에 100만원 목표 장학기금 모금 운동을 펼쳤다. 또 동창회장상도 마련하여 학교의 명예를 높였거나 재학 시 타의 모범이 된 학생 1명에게 수여하였다.

1974년 제5대 회장에 이인자(9회) 동문이 선출되어 국내회원들에게 성의학보를 발송하는 등 모교 교직원과의 인화에 주력하였다.

1976년 제6대 회장에 원영옥(3회) 동문이 취임한 후 미국 거주 동문들이 L.A., Chicago, Philadelphia, New York 등에 지부를 결성하여 68명이 680불을 보내오는 등 장학사업을 지원하였고 모교 교수들의 ICN 회의 참석을 지원하였다.

1978년 제7대 회장에 신은교(2회) 동문이 취임하여 200만원 목표 장학기금 모금과 더불어 대외 장학제도에 병행하여 무상 장학제를 추가 신설, 무상으로 2명에게 각 10만원씩 지급하였고, 동창회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회기대표회를 구성하였다.

1980년 제8대 회장에 이인자(9회) 동문이 취임, 성모병원과 성바오로 병원에서 동문 의료수혜의 길을 열어 30명이 진료 혜택을 받았다. 한편 무상장학금액도 20만원으로 늘려 지급하였다.

1982년 제9대 회장에 박창희(1회) 동문이 취임하여 600만원 목표의 장학기금을 모금하였고, 모교의 신축교사 이전시 교실 집기를 마련하였으며, 의료수혜범위를 직계가족까지 넓혔다. 또한 동창회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를 구성하였고 성의회관 내에 동창회 사무실을 마련 체계적인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1984년 제10대 회장에 지성애(10회) 동문이 취임하여 흰나리 장학금 지급액을 30만원으로 올렸고 개교 30주년을 맞아 '간호사와 인간이해'라는 주제로 기념 학술 대회를 가졌으며, 동문 재상봉행사를 주최, 1회부터 5회까지 국내 및 국외거주 동문들과 초대 고문인 김영진 선생과 후배 167명이 모여 우의를 다졌

다. 또 나이팅게일 동상 건립기금을 마련하여 1986년 2월에 제막식을 가졌다. 또 장학기금 확장을 위해 뱃지가 새겨진 차수저를 제작, 판매하였고 동문의 박사학위 취득기념 논문 발표회를 지원하였다. 1984년부터 방용자, 한윤복 교수 두 분을 고문으로 추대하였다.

1986년 제11대 회장에 한상임(10회) 동문이 선출되어 2,000만원의 장학기금을 모금하였으며 국외 4개지부 및 CMC 강남성모병원동문회, 양호교사동문회 등의 동창회 산하단체를 결성하였다.

1988년 제12대 회장에 박혜자(11회) 동문이 선출되어 장학기금 확장을 위해 뱃지가 새겨진 도자기 소품을 제작하여 판매하였고, 동창 간의 유대증진과 업무의 활성화를 위하여 회원 기록부 작성과 평생 회원제 확충에 힘썼다.

1990년 제13대 회장에 홍승자(8회) 동문이 선출되어 동창 간의 유대증진을 도모했으며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컴퓨터를 도입, 동창회의 제반 업무를 전산화하였다.

1992년 제14대 회장에 홍승자(8회) 동문이 재임되었고, 동문들 사이의 유대와 재학생들에 대한 활동보조 및 격려를 더욱 강화하였으며, 1993년 간호대학으로의 승격을 돕기 위하여 간호학과 장기발전 위원회를 결성, 5억원을 목표로 기금모금을 시작하였다.

1994년 동창회 주요사업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제15대 회장에 홍승자(8회) 동문이 유임 되었다. CMC 성모병원동문회가 발족되어 동창회 산하단체가 하나 더 구성되었으며 개교 40주년을 맞아 축하 행사를 적극 지원하였고, 미국 San Jose에 거주하는 동문이 증가하여 지부를 결성, 해외지부를 1곳 늘려 사업을 펼쳤다. 또한 간호대학 승격 지원사업을 계속하여 1994년 11월 교육부로부터 간호대학 승격을 인가받는 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1995년 3월 간호대학이 출범하였다.

1996년 제16대 회장에 백종혜(8회) 동문이 선출되었고, 해외지부 활동 강화의 일환으로 대학본부 주최로 개최된 재미 가톨릭대학교 총동창회에 참석 및 행사 보조와 시카고, 워싱턴지부를 방문하여 해외 동문을 격려했다. 또한 10월에는 동창회기금 및 장학기금 확장을 위한 알뜰바자회를 개최하여 기금조성에 기여하였고, 동창회보 창간호를 제작·발송하였으며 1997년 동창회보를 년 2회 발간하여 회원 간의 유대증진에 힘썼다. 또한 본 간호대학이 간호학과 평가 시 전국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되어 축하식과 함께 학생 및 동문에게 기념품을 증정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1998년 제17대 회장에는 최국미(7회) 동문이 선출되어 동창회 기금 관련 및 동창회의 내실을 기하는데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전 동문의 평생회원등록을 목표로 동창회의 지로를 개설함으로써 평생회원의 등록률을 높였다. 한편 1998년 9월과 1999년 10월 동창회 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를 개최하여 동창회 기금조성에 힘썼을 뿐만 아니라 바자회가 동창회원들의 만남의 장으로써 자리매김 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동창회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동창회 사무실에 상주하는 파트타임 유급간사를 처음으로 채용하였으며 유자차, 딸기잼의 판매 등을 통해 동창회 수익사업을 시도하였다.

2000년 제18대 회장에 최국미(7회) 동문이 유임되면서 동창회보의 연 1회 발간, 지역동문회 모임의 지원사업 등 지속적으로 동창회 활성화에 힘썼다. 2000년 기금마련 바자회가 의료분류사태로 취소되었으나 이듬해인 2001년 9월 제4회 동창회 바자회가 개최되어 동문들의 만남의 장에 다시금 활기를 되찾았

고, 이익금 1,800만원이 동창회 기금에 더하여졌다.

2002년 제19대 회장에 최국미(7회) 동문이 유임되었으며, 2003년 9월 제5회 동창회 바자회를 개최하였다. 성의회관 건립기금 및 동창회 발전기금 모금을 위해 개최된 제5회 바자회 이익금 중 1,000만원을 9월 29일 성의회관 건립기금으로 기부함으로써 성의회관 건립기금 모금에 동문들의 작은 정성을 모았다.

2004년 제20대 회장에 남정자(11회) 동문이 선출되어 그 해 5월 간호대학 개교 50주년을 맞아 동창기금에서 행사찬조금으로 3,000만원을 모교에 기탁하였고, 2004년 5월 4일 「동문의 밤」 행사를 47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하는 한편 동창회 홈페이지(www.cmcdc.co.kr)를 개설하였다. 2005년 9월 8일 제6회 바자회를 개최하여 이익금 2,000만원을 동창회기금에 더하였다.

2006년 제21대 회장에 남정자(11회) 동문이 유임되었으며, 모교 및 CMC 재직 동문들을 중심으로 여러 동문들이 서울성모병원 건립 후원에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2007년 11월 26일 서울성모병원 건립 후원금으로 1,000만원을 기탁하였다.

2008년 제22대 회장에 조규숙(12회) 동문이 선출되었고, 2008년 3월 17일 성의회관 3층으로 동창회 사무실을 이전하였으며 2008년 6월 17일, 18일 2일간 제7회 바자회를 개최하여 이익금 4,200만원을 서울성모병원 건립후원금으로 기탁하였다. 또한 서울성모병원을 포함한 성의교정에 조성하는 「동문의 숲」 후원금으로 300만원을 2009년 6월 1일 기탁하였다.

2010년 제23대 회장에 조규숙(12회) 동문이 유임되었으며, 2011년 6월 2일, 3일 2일간 제8회 바자회를 개최하여 이익금 4,200만원을 여의도성모병원 발전기금으로 기탁하였다.

2012년 제24대 회장에 조규숙(12회) 동문이 유임되었으며, 회기별 찬조금 모금운동을 전개하여 842만원을 모금하였다.

2014년 제25대 회장에 이미형(22회) 동문이 선출되어 2014년 5월 간호대학 개교 60주년을 맞아 동창기금에서 행사찬조금으로 1,000만원을 모교에 기탁하고 5월 23일 「동문의 밤」 행사를 52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서 동문들(참석하지 못한 동문과 해외동문 포함)은 간호대학 발전기금 후원 약정서를 모교에 전달했으며 약정금액은 4억7천만원에 이르렀다. 2014년 이미형 동창회장은 송경애 간호대학 교학부학과장과 함께 뉴욕 및 뉴저지, 시애틀 지역 재미 동문들을 방문하였고 2014년 9월 26일 시애틀 지부가 결성되었다. 2015년 10월 15일(목)에 제9회 동창회 바자회를 개최하여 수익금 중 1,000만원을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60주년 기념관' 건립기금으로 기탁하고, 2,500만원은 동창회기금에 더하였다.

2016년 제26대 회장에 정승교(21회) 동문이 선출되었다. 동문들의 유대관계 향상을 위하여 선임회장 간담회를 2회 주최하였으며, 동창회 활성화를 위해 이사회는 2016년에는 '난타' 공연 관람을 하였다. 2017년에는 동문애를 다지기 위해 특강과 함께 '아나바다' 알뜰장터 행사를 마련하였다. '아나바다' 행사에서 얻은 수익금 1,023,000원은 동창회 기금으로 더하였다.

2018년 제27대 회장으로 정승교 동문이 유임되었으며, 이사회 활성화를 위해 2018년 '아나바다' 알뜰 장터와 2019년 '제천탐방'을 추진하였다. 또한 2020년 동창회 활성화를 위해 서울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은평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 총동문회에 격려하는 지원금을 보냈으며 특히 COVID-19로 인한 은평성모병원과 의정부성모병원 동문과 간호사들의 수고에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간식을 지원하여 격려하였다. 해외지부의 활성화를 위해 문정일 의부부총장의 지원으로 LA 지부 간호대학 동문회에 학교 교기와 근조기를 제작, 지원하였다. 2018년 제54회 정기총회부터 졸업 40주년을 맞이하는 동문들의 기념 시간을 가졌다. 졸업40주년을 맞이한 21회 동문(이사:오미숙, 2018년)과 22회 동문(이사:김효숙, 2019년)은 각각 4,150,000원과 6,000,000원의 동창기금을 마련하여 동창회에 뜻깊은 기부를 하였다.

2020년 COVID-19 상황으로 늦어진 총회에서 정승교(21회, 27대 동창회장) 동문이 동창회 회장 업무를 그해 9월까지 이어갔고, 9월 비대면 총회에서 제28대 회장으로 양 수(20회) 동문이 선출되었다. 졸업 40주년을 맞이한 23회기(이사 : 김경숙)일등은 동창회에 10,000,000원의 동창기금을 마련하여 뜻깊은 기부를 하였고, 동창회는 23회 동문께 동문의 이름을 새긴 머그컵을 기념품으로 전달하였다. 계속되는 COVID-19로 2020년과 2021년은 비대면 실행이사회와 이사회를 화상으로 동창회 업무와 사업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고 논의를 해나갔다. 2021년과 2022년 동창회 활성화 사업으로 선임회장께 신년 인사로 난 화분을 보내고, 2022년 3월에 병원(서울성모, 여의도성모, 은평성모, 의정부성모)에서 근무하는 동문 738명에게 모바일 음료 상품권을 전달하여 격려하였다. 2022년 4월 현재 유니버스 파크 개관을 앞두고 간호대학과 동창회장 사무실이 5월초 이전하고 개관식은 5월 20일에 있었다. 2022년 58회 총회는 코로나 상황으로 6월 8일 오후5시에 비대면 총회로 진행하였다.

2023년, 2월23일 오후 5시 유니버스 파크, 플렌티 홀에서 제59회 총회를 개최하였다.

팬데믹 상황으로 3년 만에 개최한 대면 정기총회로 많은 동문이 참석해 동창회 사업 회무 보고와 재무 보고를 받고, 동창회 사업에 대해 토의한 후, 졸업 40주년 기념 축하(24회이사 : 정득남 동문, 25회이사 : 노원자 동문, 26회이사: 한미영 동문)시간을 갖고, 축하무대와 더불어 대화를 나누며 만찬을 즐겼다. 조봉숙(1회) 동문부터 신입동문(66회)까지 모인 총회는 간호대학 단독건물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2024년, 2월 28일 오후5시, 제60회 정기총회에서 29대 양 수(20회) 동창회장에 이어, 30대 동창회장으로 이선미(21회) 동문이 만장일치로 선출되었다. 5월에 있을 개교 70주년 기념행사인 국제학술대회와 동문의 밤 행사를 앞두고 있다.

2) 조직과 구성

동창회 조직은 총회·이사회·실행이사회와 7개의 해외지부(미국에 5개 지부, 캐나다지부, 독일지부)와 7개의 산하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회원으로 구성된 총회는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회칙개정, 임원선거, 예산·결산, 사업계획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사회는 회장·부회장·이사·실행 이사로 구성되어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에 관한 사항,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며, 실행이사회는 회장·부회장·실행 이사로 구성되어 동창회의 실무적 사항을 심의하고 집행한다.

각 회기 대표는 당연직 이사이며, 현재 임원진은 회장 1명, 부회장 5명, 감사 2명과 실행 이사 6명(총무, 서기 2명, 재무, 출판, 홍보)으로 구성되어 있다.

3) 동문 활동현황

동창 회원 수는 3,861명(2024년 4월 현재, 명예 회원 7명 제외)이며, 동문의 40% 정도는 국내 주요 병원에서 임상 간호사로 4% 정도는 학교 및 산업장에서, 미국, 캐나다, 독일 등 해외로 취업·이민·유학을 떠나 한국의 간호, 가톨릭의 간호를 빛내고 있는 동문이 21%로 추정된다. 또한 간호계 후진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의 교수, 간호학문 및 사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연구직은 4%, 그 외 교육 현장의 보건교사, 산업장 건강관리자, 보건복지 관련기관의 전문요원, 요양시설 운영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4) 주요사업

동창회의 주요사업은 회원관련 사업과 모교관련 사업으로 대별할 수 있다. 전자로는 ① 회원들의 권익 및 복지증진과 ② 회원간의 유대증진 사업이 있으며, 후자로는 ③ 장학사업 및 학생활동 후원사업과 ④ 모교 발전사업 등이 있다.